

결재일자	2015.05.
문서번호	의회 -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공개

결재	담당	의정팀장	사무국장	의장
협조			운영위원장	

2015년

의원 해외 비교시찰 결과보고



강북구의회

순서

I. 연수 개요	1
----------------	---

II. 국가별 비교시찰 현황	3
-----------------------	---

1. 영국	9
-------------	---

2. 이탈리아	9
---------------	---

3. 스위스	9
--------------	---

4. 프랑스	9
--------------	---

III. 방문성과 및 평가	17
----------------------	----

2015.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래간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하고, 천애의 자연환경을 활용과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굳건히 지켜온 서유럽 4개국을 비교 시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넓히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고안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 연 수 개 요

□ 연수 계획

- 연수기간 : 2015. 04. 30(목) ~ 05. 09(토) / 8박 10일
- 주요방문지
 - 영국, 이태리(로마,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스위스, 프랑스
- 연수사유
 - 선진정책 우수사례 수집하고 벤치마킹 논의
 - 관광지역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상생의 방향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탐방
- 참가자 : 총 9명
 - 의 원(7명) : 김동식 의장, 이영심 운영위원장
박문수 의원, 이백균 의원,
김영준의원, 유인애 의원, 김명숙 의원,
 - 직 원(7명) : 김병윤의정팀장, 김대연 주무관

□ 연수 일정

일 자	국가 도시	일 정	비 고
제1일차 04/30(목)	영국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런던(영국) 히드로 국제 공항 도착 (도심거리 시찰 - 교통시설 및 쓰레기 배출 현황 등) 	
제2일차 05/01(금)	영국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행정 기관, 도시기반 및 역사문화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회의사당, 런던시청 방문 ○ 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드 파크 공원 ○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영박물관 ○ 버킹검 궁전, 빅벤, 웨스트민스터사원 ○ 런던의 상징인 타워브릿지(가동교) □ 런던 게트워 공항 출발 	
제3일차 05/02(토)	이태리 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기관, 도시기반 및 종교, 관광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치오주 의회 방문 ○ '세계 최소의 독립국' 바티칸시국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예배당, 성베드로 성당 ○ '역사의 도시' 로마 시내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 - 로마제국의 중심지 포로 로마노 - 트레비 분수 등 로마 유적지 및 시내 견학 	
제4일차 05/03(일)	이태리 폼페이 소렌토 나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지역 이해를 위한 역사문화, 관광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수비우스 화산폭발 도시' 폼페이 탐방 ○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휴양지' 소렌토 탐방 ○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타루치아 항구, 가스텔누오보 성 등 	

일 자	국가 도시	일 정	비 고
제5일차 05/04(월)	이태리 피렌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 및 역사, 문화, 관광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네상스의 발원지'이며 피렌체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렌체 시청 방문 - 역사, 관광 시설 두오모 성당, 미켈란젤로 언덕 - 시뇨리아 광장, 신곡의 작가 '단테' 의 생가 	
제6일차 05/05(화)	이태리 베니스 밀라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 및 역사, 문화, 관광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 이라고 격찬한 곳인 산마르코 광장 - 베니스의 상징인 산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탐방 - 탄식의 다리, 수상택시 체험 ○ 이태리 경제의 중심 밀라노 시내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회랑, 스칼라 극장 	
제7일차 05/06(수)	스위스 인터라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지역을 이해를 위한 관광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프스 융프라우 톱니바퀴식 등반 열차 시승 ○ 융프라우 정상 관광자원시설 탐방 	
제8일차 05/07(목)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지역을 이해를 위한 교통, 도시기반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로잔역에서 T.G.V(떼제베) 탑승 파리 이동 ○ 파리의 대표적 상징물인 개선문 ○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 패션과 문화의 거리 샹제리제 거리 등 관광 	
제8일차 05/08(금)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지역을 이해를 위한 역사, 교육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 jardin d'acclimatation(식물원) 방문 ○ 초호화 궁전인 베르사이유 궁전 견학 ○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 견학 	

1

영국

1) 국가 및 도시별 현황

- 영국은 유럽 북서부 해안의 브리튼 제도에 위치한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접하여 있으며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아일랜드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로 네 개의 홈 네이션스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가이다. 수도는 런던이고 연합국의 구성을 이루는 각 나라들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 영국은 근대적 의회제도와 의원내각제를 전 세계로 전파시킨 정치선진국이며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래간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킨 나라이다.
-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로, ‘군주는 군림하여도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군주의 권한 행사는 내각의 조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성문화된 헌법은 없으며, 정치의 기본은 전통·관례·약간의 기본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19세기 후반에 확립되었으나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성의 관할 밑에 놓여 있다.

2) 방문내용

□ 입법, 행정, 교육시설 시찰

○ 영국 국회의사당, 런던시청, 대영박물관 방문

- 영국의 국회의사당은 현재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되어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상원은 약 1,190명의 의원으로, 하원은 651명의 의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세습직과 임명직 의원들로 구성되며, 발의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해 각각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선출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발의된 모든 법안을 다룰 수 있고 하원의 다수당의 리더가 영국의 여왕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된다고 함.

- 런던시청은 친환경, 투명행정을 표방하며 런던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건물전체를 유리 자재로 건설하여 자연채광율을 높여 에너지소비율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행정의 투명화라는 은유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직사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자재로 만들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과는 사뭇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 대영박물관은 런던 블롬즈베리에 위치에 있으며, 세계 3대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히나, 자국 물품이 일정수 이상 되지 않으면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는 국제박물관 현장에 따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한 문화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집트 등 고대문화예술품등이 매우 많은 틴바구니안에서도 2000년 11월에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관의 문화재들도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 도시기반 조성 및 역사문화시설 시찰

○ 영국의 도시보존 정책

- 영국은 기본적으로 191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전통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영국 전체 건축물의 20%에 해당한다고 하며, 가능한한 최대한 많은 전통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유산복원기금을 운영하여 전통건축기술자를 보호하고, 영국의 각 대학들과 협력하여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전통건축관련 인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용창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체계화된 건축물 보존시스템은 런던 도시 전체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며, 우리의 문화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영국의 자전거 정책

- 런던시장인 보리스 존슨에 의하여 2010년 6월부터 대중적으로 도입된 공용자전거 정책인 BCH시스템(public bicycle hire)은 그린런던정책과의 연계사업으로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해결 노력의 일환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학교마도 교육용 자전거 공급, 자전거 안전 점검 무상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함. 공용 자전거 대여요금은 하루에 2파운드, 1년에 90파운드 정도로 새로운 런던의 명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함.

○ 영국의 교통정책(버스, 블랙캡)

- 영국의 2층버스와 블랙캡 택시 또한 영국의 명물로써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음, 2층버스인 루트마스터는 낙후된 설비와 차량의 후미가 개방된 구조로 인하여 한때 안전요원의 인건비 문제, 탑승관광객의 위험요소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으나,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영국 시민들의 여론을 간파한 보리스 존슨 시장의 개선 정책시행으로 기존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실용성을 갖춘 모습으로 재단장하였고, 과거에는 현금으로 탑승가능했으나, 재단장하면서 전면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었음.

한편, 클래식하면서 귀여운 런던의 택시 블랙캡은 도심의 명물인 만큼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엄격한 시험요건을 갖추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함, 런던 곳곳의 도로의 이름과 빌딩의 위치 등으로 모두 알아야 하여 운전하기 까지 최장 4년까지도 걸릴수 있다고 한다. 각각의 운전사에 대한 시험, 검사, 범죄기록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승객의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 영국의 흡연정책

- 대형슈퍼마켓 등 진열대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2007년부터 지붕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전면 흡연을 금지하는 등 흡연규제 세계최고인 영국이지만, 비규제대상인 길거리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상이었음, 길거리 흡연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많다고 하며,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음.

자전거대여시스템	교통시설(버스)	흡연시설
		

2

이탈리아

1) 국가 및 도시별 현황

- 이탈리아 공화국은 남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해의 두 섬 시칠리아 및 사르데냐로 이루어진 단일 의회 공화국이다. 북쪽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는 60,200,000여 명으로, 유럽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고, 전 세계 기준으로는 23위이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인 로마를 비롯하여,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 피렌체, 토리노, 베네치아 등이 있다.
- 오늘날의 이탈리아는 민주 공화국이며, 이코노미스트지 조사에서 삶의 질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이 나라는 높은 생활 수준을 구가하며, 2010년 인간 개발 지수는 24위였으며, 2011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 8위이다. 이탈리아는 오늘날 유럽 연합의 창립 회원국으로,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된 나라이기도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원년 회원국이다. 그 밖에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세계 무역 기구(WTO), 유럽 평의회, 서유럽 연합의 일원이다.

2) 방문내용

-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라치오 주의 주도로, 테베레 강 연안에 있다. 한때는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중심지였다. 2013년 현재의 인구는 약 286만명이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고온건조하다. 원래는 로마의 일부였으나 교황령으로써 독립한 바티칸 시국이 자리잡고 있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나라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으로 이탈리아, 특히 로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은 거리가 좁고 대부분이 테베레 강가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로마의 과거의 영광의 흔적인 기념 석조물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 있다.

□ 역사문화관광 및 교통 분야 시찰

○ 로마의 도시보전 정책

- 유네스코에서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문화 유산등록제를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등록 현황 중 반이 고대 로마, 르네상스 문화 집중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재라고 한다.
- 이러한 수치가 말해 주듯 로마의 건축물 및 문화재 들은 돌담 하나 교체하거나 복원하거나 신축한 것이 없다고 한다. 고대로부터 존재하는 원형 그대로 언제나 동일하게 보전 될 수 있도록 유적 보존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다고 한다. 무너질 염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 진단하여 유지적 차원의 보수를 시행하고, 유적지 안으로는 허가된 차량외에는 차량은 통행이 일절 금지되어 있고, 유지보수시에는 공사 완료시까지 출입을 금지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콜로세움 근처 지하철역 확장 공사가 시행되면서 콜로세움 붕괴 방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 또한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도 철저히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로마의 도시미관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강변에 즐비한 유흥가나 모텔, 도심 건물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네온사인과 옥상간판도 일절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점이였다.

포로로마노	성베드로성당	콜로세움
		

○ 로마의 교통정책

- 로마의 도시보전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되어보이는 것은 교통난이었다. 도시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로마의 특성상 1차선 도로가 많아, 교통혼잡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인다. 길거리에 1인승 전기차량과 소형차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로 인한 것이었다.
- 이러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로마에서는 승용차, 관광버스 등의 대형차량의 진입을 대대적으로 막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트램 등으로 주요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최근에는 차량 제한 지역에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도심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라치오주 의회 방문	소형차 현황	보도블럭 현황
		

○ 폼페이 일자리 창출 현지가이드 고용정책

- 폼페이(Pompeii)는 고대 로마의 도시이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 나폴리 인근으로, 현재 행정 구역으로는 폼페이 코무네에 속한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산 분화로 인근의 헤르쿨라네움 등과 함께 화산재와 분석에 묻혀 파괴되었다.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다.
- 로마, 폼페이 등 이태리 관광산업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현지인 가이드였다. 이태리 관광법에 의하면 바티칸 박물관, 폼페이 등 특정관광지에서는 반드시 현지인 가이드를 법적으로 동반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울만한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의 곤돌라

-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주의 주도이다. 과거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였다. 영어로는 ‘베니스’라 한다. 세계적 관광지이며, 운하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베네치아만 안쪽의 석호 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다. 인구는 2006년 집계 당시 268,934명이며, 이 중 176,621명이 육지에 살고 있으며, 30,702명은 석호에, 61,611명은 구시가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

- 베니스의 곤돌라는 유일하게 이곳 베니스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평탄한 물에서만 다닐 수 있는 배를 두고 말한다. 과거 18세기에는 자그마치 만 사천(14,000)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곤돌라들이 베니스에서 운행되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수상 택시들로 인하여 지금은 단지 500개 정도의 곤돌라들만이 운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곤돌라 역시 영국의 블랙캡처럼 아무나 배를 갖고 있다고 볼수는 없고, 자격증 시험을 봐야한다고 한다. 곤돌라 조정 능력뿐이 아니라 영어, 이탈리아의 역사, 문화 등 다방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함. 모든 곤돌라의 색깔이 검정색인 이유도 궁금했는데, 그 옛날 귀족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곤돌라를 사치스럽게 치장하자 베네치아 의회에서 같은 색깔로 지정하도록 법령을 지정했다고함.

폼페이	베니스	베니스 곤돌라
		

- 고유 가족문화를 양성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피렌체 직업학교
 - 구찌, 페레가모 등 세계유수의 가족업체들의 근원지인 피렌체는 최초에는 전쟁고아에게 먹고 살기 위한 실용적인 사업수완을 배우는 의미를 주는 것이었지만, 현재에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가족공예 장인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오늘날까지도 전세계에서 가족공예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디플로마가 수여되며 현지 장인 아래에서 기능장이 되기 위해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서 3개월까지 하는 단기 코스와 6개월~1년까지 배우는 정규 코스가 있고 3개월 코스 학비는 약 6백만원 선이라고 한다.



- 밀라노의 자전거 공용제(바이크미 BikeMi) 운영
 - 바이크쉐어링(bike sharing)이라 불리는 자전거 공용제는 2009년 말 현재 이탈리아 130여 시에서 실시, 1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적극적인 정부 홍보 및 지원에 힘입어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도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실정임.
 - 바이크미 공식 웹사이트, 밀라노 시내 지하철역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권 신청하며 연간, 주간, 일일 이용권으로 구분하여 이용가능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여 16세 이상의 카드 소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밀라노는 현재 100km 이르는 자전거 도로, 1,400여대의 공용자전거, 바이크 포인트로 1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사무실 밀집 지역 부근의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에 자전거대여소 개설을 추진하여 통근자들의 버스 대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여, 도심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심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밀라노 명품거리	밀라노 광장	밀라노 자전거 시스템
		

3 스위스 인터라켄

1) 국가 및 도시별 현황

- 스위스는 중앙유럽에 있는 연방 공화국이며, 내륙국이다. 수도는 법률상으로 없으나, 베른이 사실상 수도 기능을 하고 있으며, 최대 도시는 취리히이다.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로마 제국 시기의 헬베티족 또는 갈리아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 스위스 정치는 1848년 연방 헌법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참여한다. 그러나 스위스의 투표율은 4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인터라켄'은 툰 호수(Thunersee)와 브린쯔 호수(Brienzersee) 사이에 있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도시 면적은 4.3 km²은 그다지 크지 않아 산책 삼아 걸어도 될 정도의 크기이며, 높이는 568m, 인구는 5,429명(2010년 기준), 인구 밀도는 1,234명/km²로 전체적으로 호반 휴양지 분위기를 띈다.

2) 방문내용

- 역사문화관광분야 시찰

- 인터라켄의 관광 개발 역사와 일자리 창출

- 한해 6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는 스위스의 산악도시 인터라켄은 초기에는 단순히 지방의 소도시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매우 뛰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발 4000m 이상의 알프스의 산세만이 있을 뿐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요소가 없었던 것이다.
- 이러한 관광상황을 변모시키기 위하여,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융프라우요흐 철도역까지 운행하는 철도 건설의 첫삽이 1896년에 아돌프 구에르 켈러에 의해 시작되어 1912년까지 총 16년에 걸쳐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완공되었다.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부분의 구간을 인부들의 손으로 일구었고, 워낙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예와 같이 생태계의 파괴나, 기존서식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게 되는일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 또한, 융프라우를 오르기 전과 오르면서 본 도시기반시설에도 관광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전주에는 버스안내판, 가로등, 보안등, 쓰레기통을 모두 달아, 우리나라와 같이 각각의 시설들이 난립하여 거리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있었고,

산을 오르는 곳곳의 산악주택들이 알프스의 전경과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도, 주택의 지붕하나, 창문하나, 주변의 산악지형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자재를 선택하여 건축되어지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융프라우역에서부터 10km 하수관을 매설하여 각각의 역사가 수많은 관광객에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었다.

-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덕에 스위스 인터라켄은 알프스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했고, 이곳 인구의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도 관광가이드 등의 업무가 주어져도 부족할 정도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한다.

스위스 버스안내판	인터라켄역	융프라우 등반열차
		

4 프랑스 파리

1) 국가 및 도시별 현황

- 유럽 연합 소속 국가 중 가장 영토가 큰 프랑스는 그 지형적 모양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종종 이 곳을 육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며 2011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국가이며, 대부분의 제조업은 높은 임금으로 인해 쇠퇴했다. 현재 서유럽 5대 경제대국 중 제조업 비중이 제일 낮다. 임금은 서유럽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 프랑스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로써 1958년 10월 8일에 드골 장군이 공포한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헌법에 바탕을 둔 제5공화국의 특색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에 있는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와 각료로서 구성된다. 초기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2회 투표, 소선거구제의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는 577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국민의회 및 지방의회 대표에 의한 간접선거로 구성된다(정수 319명, 임기 9년, 3년마다 1/3개선). 정당은 중도파의 신(新)공화국 연합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작은 당의 분립인데, 소선거구제로 인해 정국은 일단 안정을 보이고 있다.
-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 프랑스 북부 일드프랑스 지방의 중앙에 있다. 센 강 중류에 있으며, 면적은 105km².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224만 명이다. 파리의 행정 구역은 1~20구로 나뉘어 있다.

2) 방문내용

- 도시기반시설 및 역사문화 관광분야 시찰
 - 파리시의 고속철도(TGV)와 버스운행시스템
 - 유럽 최초의 고속열차로써 1981년에 파리와 리옹 사이에 개통을 필두로 고속열차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최고운전속도는 300KM까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KTX가 기술이전을 받은 모델이기도함, 199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는 KTX의 고속철도기종으로 채택받기 위하여 고속철도 기술이전은 물론, 직지심경 반환도 약조하였으나 그 어느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하니 씁쓸한 일이었다.

- 또한, 여행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은 버스운행시스템이었다, 프랑스의 공공버스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며, 운행사실이 버스의 블랙박스에 기록되어 불시점검된다고 하였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승객과 운전사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 파리시의 흡연정책

- 파리 또한 유럽의 여러나라들과 같이 흡연에 관대한 분위기가 었음, 성인남녀의 40%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남녀노소 애용하고 있다고 하며, 담배값 인상, 레스토랑, 카페 등에 금연구역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영국과 같이 흡연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하며, 도시 곳곳에 흡연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 le jardin d'acclimatation(식물원)내 서울공원 방문

- 지난 2002년 3월에 건립된 서울공원은 파리의 중심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고건시장이 건립한 곳으로, 1,400평의 대지 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통가옥과 조형물들이 놓여져 있었다. 당시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증 형식으로 건립되어 보존 관리에 대한 책임은 파리시 공원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한인들의 주요 행사장소로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정하였다고 한다. 세계 문화의 도시에 우리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으로, 파리 이주 한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임을 느낄수 있었다.

T.G.V 열차	파리시 흡연시설	식물원 방문
		

○ 파리시의 도시보존 정책

- 파리시 또한 영국 못지 않게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지켜 나가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세 르네상스 시절의 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개발 및 난개발을 막고 문화유산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살고 있는 주인에게 철거 및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 루브르궁을 개조한 것으로써, 파리의 세느강변에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장품의 수와 질 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과 대영박물관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다.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은 근대에 건설된 것으로 현재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고대 건물들이 잘보전되어 있는 파리시에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곳은 루브르와 베르사유 궁전밖에 없다고 하는데, 1980년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세느강변의 방어성벽 또한 전시화 시켜 아주 잘 보전시킨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한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 에펠 탑은 1889년 파리 마르스 광장에 지어진 탑이다. 프랑스의 대표 건축물인 이 탑은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할 만큼 세계적인 유료 관람지이다. 이를 디자인한 귀스타브 에펠의 이름에서 명칭을 얻었으며,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세계 박람회의 출입 관문으로 건축되었다.
- 에펠 탑은 그 높이가 324 m이며, 이는 81층 높이의 건물과 맞먹는 높이이다.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 에펠탑은 건설초기 흉물스런 철탑의 모습으로 인해 파리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에 토론을 통해 세계박람회 이후 20년내에 철거를 조건부로 건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영화에서 배경 화면으로 자주 보여지면서 프랑스와 파리 모두를 나타내는 가장 눈에 띄는 상징물이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 초호화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 견학

- 베르사유는 원래 파리의 시골 마을 중 하나였으나 이 궁전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자치권을 가지는 파리 외곽의 도시가 되었다. 또한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왕이 사냥할 때 머무는 여름 별장이었으나 루이 14세가 파리에서 이 궁전으로 거처를 옮겨, 왕가가 수도로 돌아갈 것을 강제될 때까지 프랑스 앙시앵 레짐 시기, 권력의 중심지였다. 바로크 건축의 대표작품으로, 호화로운 건물과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 그리고 로페라와 거울의 방으로 유명하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 참 고 사 항 : 보고서 작성 인용자료 출처

- 여행사 및 현지가이드 안내
- 방문지 안내 리후렛
- 각 대사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자료

- 역사 문화 관광에 있어 지고한 역사와 다양한 제도를 갖춘 서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선진문물을 익히고, 우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하여 위한 기초를 가지고 임한 이번 비교시찰에서 모든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식견을 넓히고 배경지식을 습득하고자 하고자 노력하였고, 연수 종료 후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음.

- 특히,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 되었던 의견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았다.
 - 서유럽의 관광자원의 활용과 역사문화시설 보존 정책
 - 천애의 자연환경을 성공적으로 관광자원화 시킨 스위스의 융프라우 관광열차와 예산절감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표지판이 붙어있는 전신주들, 흉물 철탑에서 파리의 명물이 된 에펠탑, 친환경과 공공투명성의 랜드마크 런던시청의 사례
 - 막대한 유지보수예산에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영국의 전통 건축물 보존정책,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로마의 문화재 보존과 네온사인등을 일절 금지한 광고물 정책, 기존 문화재 건물을 이용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의 사례

 - 관광산업과 연계된 교통 및 일자리 정책
 - 전통건축물 보존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영국과 밀라노의 친환경 공용자전거 정책과 로마의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의 대중교통 정책
 -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도시를 찾는 자국의 홍보, 관광객의 안전, 일자리창출을 모두 만족시킨 영국의 블랙캡, 베니스의 곤돌라의 사례

- 문화유산복권기금을 이용한 전통건축기술자 양성시스템, 이태리의 현지가이드 고용 의무화 관광정책, 피렌체의 가족장인 양성을 위한 직업학교, 스위스의 관광열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사례

○ 금연 및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 정책

- 개인의 흡연권리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서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흡연정책 비교

□ 이번 연수는 7명의 의원이 참여한 비교시찰이었다. 참여한 의원 모두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열성적인 질문과 예리한 질문으로 진지한 간담회에 임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 고안 및 조례안 발의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본 연수를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현지 관계자 등 방문지역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수보고서를 마친다.